여순사건 피해신고 저조…“직권 전수조사 필요”

지난 14일까지 1040건 접수
“피해 신고·전수조사 동시에”
여순10·19범국민연대 촉구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신고가 저조해 피해 신고 접수 외 직권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에 의해 지난 1월 21일부터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조사가 시작됐다.

특별법에 따라 전남도지사 산하에 설치된 실무위원회와 22개 시군에서 피해 신청을 받기 시작해 14일까지 1040건이 접수됐다.

여순사건이 발발한 여수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159건, 광양 103건, 구례 89건, 보성 34건이 접수됐다.

피해 신고가 예상보다 적자, 전남도 실무위원회와 시군이 직접 집단 학살이 발생했던 지역을 찾아가 현장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전남도와 순천시가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를 위해 순천 낙안면 신전마을을 비롯해 6개 지역을 순회 방문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 제공〉

지난 12일~13일 전남도와 순천시가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를 위해 순천시 낙안면 신전마을을 비롯해 6개 지역을 순회 방문했지만, 피해자의 상황을 말해줄 증인들이 이미 숨지거나 고령의 목격자들이 증언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라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제대로 된 피해 접수를 위해서는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 건수가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고령의 유족들의 신고만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피해 신고 직권 전수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가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교육 후 마을에서 이장들의 역할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각 시군의 이통장들에게 공식적인 소임을 주고 각각의 마을에서 여순사건 피해사례 발굴 및 피해 유족을 찾아 신고하도록 도움을 주는 직접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박소정 전남도 실무위원회 자문위원은 “25년간 여순사건 진실을 찾고 알리는 활동을 해오며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찾아가는 현장 홍보는 의미와 효과가 컸다”며 “그동안 나서지 않았던 새로운 유족들과 유족 2세들이 찾아와 상담과 신고접수를 했지만, 유족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안내가 필요하며 유족들의 고령화와 건강 상태를 감안한 책임감 있는 행정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갤러리107
21일부터 5월4일까지
박희석 한국화 개인전

박희석 작 ‘매화마을’

곡성군은 오는 21일부터 5월4일까지 곡성갤러리107에서 박희석 한국화 개인전을 연다고 밝혔다.

박희석 작가는 곡성 오곡면에 작업실을 두고 지역의 풍광과 전국 곳곳을 사생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조금 쉬어가세’로 그의 대표적인 수묵담채화 40여점을 만나 볼 수 있다.

박 작가는 곡성 출신으로 희재 문장호 선생의 사사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13회의 개인전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전남도 미술대전과 광주시 미술대전의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한국 전업작가회, 수묵회, 남도 수묵협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곡성갤러리 107은 전시가 열리는 동안 휴관 없이 운영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박 작가는 “곡성과 전국의 산하를 스케치하며 전통 수묵 기법을 통해 정적인 풍광을 선보이고 싶었다”며 “작품 속 여백처럼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구례군 청년 문화복지비
연 20만원씩 지원
30일까지 신청자 접수

구례군은 전남도와 함께 청년층 인구비율 전국 최하위, 고령층 인구비율 최고인 지역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에 나섰다.

청년 문화복지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의 하나로, 수도권보다 교통 및 문화·여가활동의 접근성이 낮은 관내 청년에게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등을 제공하고 구례에 거주하는 청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21세부터 28세 청년이며 연령과 주소 요건 충족되면 매년 지급된다.

문화복지비는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해당 연도 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여행, 공연 관람 같은 문화여가활동, 학원수당, 도서 구입을 포함한 자기계발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유흥업소, 백화점은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타시도에서는 사용 불가하다.

오는 30일까지 한달간 신청을 받는다.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세계차엑스포 29일부터 3일간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차밭 힐링 버스킹·스탬프랠리
보성차·농특산물 할인판매

보성군이 오는 29일부터 5월1일까지 ‘2022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한국차문화공원과 체험 다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 농가를 위해 판매 위주의 실용적인 행사로 준비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K-티 홍보 행사, 라이브커머스(보성농특산물 할인행사), 세계차품평대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행사로 차밭에서 봄을 즐길 수 있는 차밭 힐링 버스킹, 시크릿 보성티가든 체험, 프롬나드 보성티 스탬프랠리도 마련한다.

서울 SRT수서역과 경남지역 트라이얼마트에 홍보관을 설치해 보성차와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서울지역 유명 티카페 4개소(티 노마드, 라오상하이, 오므오트, 공부차)에서 보성차를 마시고 엑스포 체험도 할 수 있다.

보성세계차엑스포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성의 대표 관광지인 차 관련 시설을 방문하면 스탬프 확인 후 2만~3만원대 기념품을 증정한다.

29일에는 미국, 유럽, 동남아 등 10개국 해외 바이어와 관내 차 관련 업체 10개소를 연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열린다.

경연행사는 제8회 대한민국티블랜딩대회와 제10회 세계차품평대회가 있다. 대한민국티블랜딩대회에서 우승한 차는 세계차품평대회에서 해외 출품 차와 경연을 펼친다.

서상균 보성세계차엑스포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가족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보성 햇차와 지역 특산물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행복 배달 해피바이러스 프로그램 운영

고흥군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있는 원거리 아동을 대상으로 ‘해피바이러스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5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아동이용시설에 주1회 전문 강사가 파견돼 정서행동, 인지발달,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매년 아동이용시설에 희망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0개소 아동이용시설에 5명의 강사를 파견해 토탈 공예, 축구, 요리, 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60여명의 아동이 참여한다.

군 관계자는 “미술, 음악,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농산어촌 아동들에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서발달 및 자존감 향상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여수시 2024년 개관 예정
어린이 도서관 건축설계 공모

여수시가 소라면 죽림리에 건립 예정인 어린이 도서관 건축 설계를 공개 모집한다.

어린이 도서관은 92억40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00㎡ 규모로 건립된다.

여수시는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착공해 2024년 10월 개관할 계획이다.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평생 독서의 습관을 길러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서관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함께 조성해 어린이와 보호자가 같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꾸며지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창의성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길 기대하며 역량 있는 건축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